

국내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 동향 분석: 2010년~2024년 KCI 등재(후보) 게재 논문

Review of Domestic Research Trends in Mental Health Literacy in South Korea: 2010-2024 KCI Indexed and KCI-Candidate Journals

1차원고접수: 2025.07.08. 수정원고접수: 2025.11.26. 최종게재결정: 2025.12.22.

남수정¹ · 장유진²

¹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²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Nam, Su-Jeong¹

Jang, Yu-Jin²

^{1,2}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achon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KCI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32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연도별 게재 현황, 용어 사용,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도구, 연구 주제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는 사회복지, 간호학, 정신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되었으며,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신건강리터러시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 중 '정신건강 정보 이해능력'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일반 성인이 가장 많았으나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 집단을 포괄하였고, 교사·대학생·공무원 등 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확인되었다. 연구 방법은 양적연구가 27편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문헌연구는 4편, 질적연구는 1편에 불과하였다. 연구 도구는 O'Connor와 Casey(2015)의 척도를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 주요 연구 주제는 정신건강리터러시와 심리사회적 변인 간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증진, 도움요청, 낙인 완화 등 조기 개입의 핵심 개념으로서의 의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리터러시를 전 생애 발달의 핵심 역량으로 이해하고, 향후 교육 실천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동향, 생애발달, 정신건강 증진, 정신건강 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literacy (MHL) research conducted in South Korea. A total of 32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Korea Citation Index (KCI)-listed (or candidate) journals between 2010 and 2024 were reviewed in terms of publication trends, terminology, participants, methods, tools, and research themes. The analysis showed that MHL studies were conducted across various fields, including social welfare, nursing, psychiatry, and engineering, with a steady increase since 2016. Among the terms used, "mental health information understanding ability" appeared most frequently. Adults were the most common participants, but studies also included children, adolescents, older adults, and occupational groups such as teachers, students, and public officials. Quantitative research predominated with 27 studies, while literature and qualitative research were relatively few. Most studies modified O'Connor and Casey's (2015) scale for use in Korea. Major research themes focused on relationships between MHL and psychosocial variables, emphasizing its role in mental health promotion, help-seeking, and stigma reduction. However, few studies developed or tested educational or intervention programs. This study contributes by framing MHL as a core competency across the lifespan and offering foundational data for educational and policy development.

Keywords mental health literacy, research trends, lifespan development, mental health promotion, mental health education

Corresponding to 장유진 (Jang, Yu-Jin)

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achon University) E-mail. yjjang@gachon.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신건강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전 연령대가 직면하는 핵심적 과제로, 그 심각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4a)에 따르면 국내 정신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6.1%이며, 이중 불안장애가 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55.2%가 자신의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73.6%로, 2022년 대비 9.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4b).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우울감, 스마트폰·인터넷 중독 경험 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인식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생애 단계 전반에서 정신건강 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맥락 속에서, 생애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정신건강리터러시가 주목받고 있다. 정신건강리터러시(mental health literacy)는 Jorm과 동료들(1997)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개인이 정신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예방과 치료적 개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리터러시(literacy)는 본래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문자, 수치, 시각, 디지털 등 다양한 기호 체계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으로 확장되어 사용된다(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8). 따라서 정신건강리터러시는 단순히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 태도, 편견 인식, 치료 및 지원 자원 활용 역량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체면문화로 인해 증상 인식 및 전문적 도움요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김희철, 2021), 정신건강리터러시 수준이 조기 발견과 개입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된다.

생애 발달단계별로 보았을 때, 정신건강리터러시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아동·청소년기는 정신건강 문제가 처음 발현되는 시기로, 전체 정신질환의 절반이 14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며(Colizzi, Lasalvia, & Ruggeri, 2020),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생명존중 교육과 자살예방교육이 확대되고 있다(최지옥, 2023). 그러나 정서조절,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와 같은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교육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이지현, 박현애, 2016), 청소년층의 정신건강 이해 수준이 낮게 보고되고 있어(최지옥, 2023)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성인기는 정신건강이 직업·가정·사회적 기능과 직접 연결되는 시기로, 이 단계의 정신건강리터러시 수준은 치료 시점과 도움요청 행동에 핵심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약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 현실은(통계청, 2025), 정신질환의 원인을 성격이나 의지력 부족 등 개인적 문제로 오해하거나 종교·취미활동으로 대체하려는 신념과 맞물려 조기 인식과 개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조선영, 최송식, 2017).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정신건강 위험이 증가하지만,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해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는 노년층의 정신건강리터러시가 도움추구 행동과 긴밀히 연관되며(권소연, 이영순, 2024), 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오두남, 이지윤, 2012; 정순돌, 이미우, 박채리, 임정숙, 2016a).

정신건강리터러시는 직업군과 관련해서도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아동·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초기 정신건강 문제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으나, 실제 판단과 중재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희성, 최희승, 2015). 더불어 교사의 대처 유연성과 분노조절 효능감이 정신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지효진, 장유진, 이주미, 2024), 정신건강리터

리시가 교사의 정서적 자기조절 능력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신건강리터러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는 특정 연령층·직군을 중심으로 연구가 축적되어 정신건강리터러시의 개념·도구·대상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이 존재한다. 한편, 학문적 관심은 2010년 이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2020년 전후로 관련 연구 편수와 주제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연구 내용도 한층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5년간 국내 연구의 전반적 방향과 시기별 특징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 용어·개념 사용, 연구주제 등 핵심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연구의 전반적 흐름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발달단계별·직군별 중재 전략 개발, 측정도구 표준화, 연구방법 확장 등 실증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를 대상으로 동향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의 연도별 게재 현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정신건강리터러시 용어의 사용 양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대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4.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5. 정신건강리터러시 측정도구의 원척도와 수정방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6.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주제의 분류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절차를 거쳐 논문을 선정하였다. 우선, 국내 주요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게재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정신건강리터러시, 정신건강 문해력, 정신건강정보 이해능력, 정신건강정보 이해력, 정신건강 지식, 정신건강역량, 정신건강 이해력 등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영문 키워드에서 Mental Health Literacy로 표기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검색 결과 총 118편의 논문이 확인되었고, 이 중 정신건강리터러시 개념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66편은 제외하였다. 제외된 논문은 정신건강 현상의 유병률·증상·치료 경험만을 보고한 역학적 연구나, 단순히 일반적 지식이나 태도만을 다룬 논문이었다. 이는 정신건강리터러시를 ‘정신건강 문제를 인식·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다차원적 역량’(Jorm et al., 1997; O'Connor & Casey, 2015)으로 정의한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원문 검토 단계에서는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와 학교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다룬 연구를 추가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32편의 논문이 선정되었으며, 모두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이었다.

2.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32편의 논문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정신건강리터러시 용어가 국내 학술 담론에 본격 등장한 2010년을 기점으로 2010 ~ 2024년 12월에 출판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둘째,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표(2016)에

따라 대분류(사회과학/의약학/공학) 및 중분류(예: 사회복지 · 사회학 · 교육학, 간호학 · 정신과학 등)로 이중 분류하였다. 복수 분야 병기 시 주분야 1개를 우선 배정하고 분야는 보조 태그로 기록하였다.

셋째, 핵심 키워드 ‘정신건강리터러시’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용된 동의어 및 유사표현(문해력/정보이해 능력/이해력/지식)을 사전 정의 목록에 포함하였다.

넷째, 발달단계(아동 · 청소년/청년/성인/노인), 직군(교사 · 교수/대학생/공무원/사회복지사/근로자), 특수 집단(정신장애인/결혼이민여성/농촌 중고령자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중복에 한해 주범주 1개에 부범주 태그를 추가하여 관리하였다.

다섯째, 연구방법에 따라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섯째, 정신건강리터러시 측정도구의 척도별 구성요소는 김희철의 연구(2019)를 바탕으로, 각 논문에서 사용한 정신건강리터러시 척도(원척도/번안 · 축약 · 수정본)를 추적하고, 지식 및 태도, 낙인, 인식 및 도움추구, 의도, 정보탐색, 평가, 활용 등과 같은 하위 구성요소를 코딩 시트로 표준화하여 비교 · 통합 도출하였다.

일곱째, 정신건강리터러시 관련 주제별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 내적 요인(우울, 서비스 이용의도 등)과 사회적 요인(사회적 지지 · 관계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두 범주를 모두 포함한 연구는 복합 요인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외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 문헌고찰 연구,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PRISMA 2020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의 단계적 절차를 준용하여 검색, 선정 절차와 제외 사유를 보고하였다. 사전에 정의한 동의어 및 유사표현을 적용해 KCI, RISS 등에서 2010년부터 2024년 자료를 검색한 후, 중복된 논문을 제거하고 제목과 초록으로 논문을 1차 선별하였다. 논문의 포함 및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32편을 선별하고 검토하였으며, 자료 추출과 코딩은 연구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코딩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한 항목은 상호 논의를 통해 합의하여 최종 확정하였고, 최종 합의 이전 독립 코딩 단계의 Cohen's κ 는 0.82로 거의 완전한 합치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κ 값은 0.60 이상은 상당한 합치, 0.80 이상은 거의 완전한 합치로 해석된다(Landis & Koch, 1977).

III. 결과 및 해석

1. 2010 ~ 2024년 연도별 · 학술분야별 게재 현황

정신건강리터러시에 관한 연구는 2010년 이선희와 서진환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어 이후 국내에서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 2024년까지 5년간 발표된 연구는 총 20편으로, 2010 ~ 2019년의 12편과 비교할 때 연구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이후 연구 편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적 부각 등 외부요인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리터러시가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술지 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과학, 의약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발표되었으며, 특히 2022년 이후에는 의약학 분야에서 연구가 두드러지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정신건강리터러시 용어의 사용현황

정신건강리터러시는 Jorm과 동료들(1997)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개인이 정신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적절히 대처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학술적 정통성과 국제적 표준화된 의미를 지니며, 주로 간호학과 의학 분야에

표 1. 2010 ~ 2024년 연도별 · 학술분야별 게재 현황

구분연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사회과학	사회복지	1			1			2			1	2	1			1	9	
	사회학							1	1								2	
	교육학 외											2				1	3	
의약학	간호학			1			1			1				1		2	6	
	정신과학													1	4		5	
	예방의학 외									1						1	2	
공학	공학일반										1	2	1			1	5	
소계		1	0	1	1	0	1	3	1	2	2	6	2	2	4	6	32	

표 2. 학술지 분야별 세부게재지명

구분		학술지 게재지 명	계
사회과학	사회복지	정신건강과사회복지(4), 사회복지연구(2), 한국사회복지학(2), 노인복지연구(1)	9
	사회학	보건과 사회과학(2)	2
	교육학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 인문사회21(1), 한국노년학연구(1)	3
의약학	간호학	간호와 보건연구(1), 군진간호연구(1), 정신간호학회지(3), 지역사회간호학회지(1)	6
	정신과학	정신신체의학(2), 대한불안의학학회지(1), 소아청소년정신의학(1), 신경정신의학(1)	5
	예방의학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1), 보건의료산업학회지(1)	2
공학	공학일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5)	5
	합계		32

서 빈번히 사용되었다(Kutcher, Wei, & Coniglio, 2016). 정신건강리터러시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 가운데 ‘정신건강정보 이해능력’이 12편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정신건강 지식’, ‘정신건강 이해력’ 등 유사한 표현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었다(표 3 참조).

표 3. 정신건강리터러시 용어의 사용현황

사용 용어	논문 수
정신건강정보 이해능력	12
정신건강 지식	7
정신건강 이해력	6
정신건강리터러시	3
정신건강 문해력	2
정신건강역량, 정신건강정보 이해력	2
합계	32

3. 정신건강리터러시 범주별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선정된 논문 중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와 동향분석 연구 등 6편을 제외한 26편을, 표 4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별로 분석하였다. 발달단계에 따른 분포는 아동·청소년 3편, 청년 1편, 성인 5편, 노인 4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지만,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경향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 대상 연구는 1편에 불과해 학술적 관심이 낮았으며, 성인 대상 연구가 가장 많아 직업적·사회적 기능과 밀접한 시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군별 분석 결과, 교사·교수 2편, 대학생 5편, 공무원 4편, 사회복지사와 근로자가 각각 1편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연구는 서비스 이용 의도와 사회적 요인을, 공무원 연구는 정신건강 인식과 실태를 다루었다. 기타 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였으며, 정신장애인, 결혼이민여성, 농촌 중고령자 등을 다룬 연구도 각각 1편씩 확인되어 취약 집단의 정신건강리터러시 수준과 서비스 접근성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정신건강리터러시 범주별 연구대상

구분	연구 대상	논문 수
발달 단계별	아동 · 청소년	3*
	청년	1
	성인	5*
	노인	4
직군별	교사, 교수	2*
	대학생	5
	공무원	4
	사회복지사	1
	근로자	1
특수 집단	정신장애인	1
	결혼이민여성	1
	농촌 중고령자	1

주. *대상이 여러 범주에 해당, 중복집계됨.

4. 연구설계와 분석기법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의 연구방법을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 32편의 논문에는 양적 · 질적 · 문헌연구가 모두 포함되었으나 혼합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적 연구는 27편(84.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로 빈도분석, 회귀분석, 매개 · 조절효과 분석 등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발표된 20편 중 16편이 양적 연구로 나타났다.

반면 질적연구는 백정원과 박병현의 연구(2020) 단 1편(3.1%)으로,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형태에 국한되어 있어 정신건강리터러시를 개인적 ·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탐구하는 연구가 부족함을 보여 준다. 문헌연구는 4편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개념 고찰과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이론적 기반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전반적으로 정신건강리터러시는 종속 변수로 설정된 연구가 많아 특정 요인이 정신건강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실증적 탐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표 5. 연구설계와 분석기법

연구방법	논문 수	대표 분석기법
양적 연구	조사연구 27	빈도분석, 회귀분석, 매개 · 조절효과분석
	실험연구 0	
질적 연구	문화 기술적 연구 0	
	사례연구 1	심층면담
문헌 연구	4	개념고찰, 연구동향 분석
혼합 연구	0	

5. 정신건강리터러시 측정도구의 원칙도와 수정 양상

정신건강리터러시 측정 도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는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 척도나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연구 목적에 따라 자가 개발한 문항이나 특정 하위 영역(지식, 태도, 도움추구 등)에 초점을 둔 도구를 활용하였다.

표 6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Jorm과 동료들(1997)의 척도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우울증 · 조현병 증상 인식, 원인 지각, 대응 전략 등을 포함하여 조기 인식과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O'Connor와 Casey(2015)의 척도는 정보 탐색, 자가관리, 예방, 도움추구 태도 등 보다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구성으로 확장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김희철(2019), 조선영과 최송식(2017) 등 여러 연구에서 번역 ·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민조사와 같은 국가 단위 연구를 기반으로 기초 지식, 태도, 자원 활용, 낙인 인식 등을 반영한 척도가 개발되었고, 고희성(2024)은 Jung, von Sternberg와 Davis(2016)의 26문항 척도를 16문항으로 타당화하였다. 또한 Jorm과 동료들(1997)의 사례 삽화 도구, O'Connor와 Casey(2015)의 척도, 서미경과 이민규(2013)의 국내 개발 도구 등이 혼합적으로 활용되며 연구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국내 정신건강리터러시 척도는 초기의 증상 식별과 지식 중심에서 점차 전문적 도움추구, 낙인, 자원 활용 등 사회적 · 구조적 요인을 포괄하는 방

표 6. 정신건강리터러시 측정도구의 원척도와 수정 양상

척도	연구자	척도 수정 및 보완 내용
Jorm 등(1997)	이선훈, 서진환(2010)	우울·조현병 증상 식별, 원인 지각, 문제해결방법 신념, 정신건강정보원(81문항)
	오두남, 이지윤(2012)	우울 인식 능력, 자기관리기법 지식·신념, 전문적 도움 자각, 치료약물 필요성(17문항)
Smith 등(2007)	박병현 등(2016) 정순돌 등(2016a) 정순돌 등(2016b) 장수미 등(2024)	능력에 대한 신념, 정보 이해력, 이해 능력, 기능적 이해, 결정 능력(10문항)
서미경, 이민규 (2013)	서미경, 이민규(2013)	우울·조현병·알코올중독 증상 인식, 원인·치료방법·자원 이해, 치료에 대한 낙인(39문항)
	고희성, 최희승(2015) 고희성, 황선영(2018)	우울·조현병 증상 인식(Jorm et al., 1997), 원인 지각, 치료방법 및 자원 이해, 치료에 대한 낙인(2015년: 42문항/2018년: 45문항)
O'Connor & Casey(2015)	조선영, 최송식(2017) 김현실, 강은옥(2019) 박지혜, 이선훈(2020) 오현주(2022)	정신질환 인지능력, 정신질환 관련 정보 탐색 지식, 위험요인·원인 지식, 자가치료 지식, 정신건강서비스 지식(이용가능한 전문적 치료에 대한 지식), 적절한 도움추구 촉진 태도(35문항)
	김희철(2019,2020) 김난이, 권영란(2024) 권소연, 이영순(2024) :김희철(2019)변안	정신질환 인지능력, 정신질환·정신건강서비스 지식, 도움추구 효능감,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18문항)
	김주영, 남보영(2024)	정신질환 인식, 정신질환 정보 획득 능력,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인식, 정신장애 인식개선 촉진태도(Jorm et al., 1997, 삽화포함)(26문항)
Jung과 동료들(2016)	고희성(2024)	정신건강 관련 지식, 신념, 자원 인식(16문항)
홍현숙 등(2008)	서연희, 조정아(2020)	정신건강 및 질환에 대한 개념·유병률·발병 원인·위험요인, 정신질환의 증상·인지·치료·치료율(16문항)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보건복지부, 2015)	오미정 등(2020) 김민자 등(2020) 오은정, 장경오(2021) 김민자 등(202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 도움추구 역량, 정신건강정보원에 대한 지식(15문항)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 (보건복지부, 2021)	한소중 등(2023) 강소미 등(2023)	이해력, 정신질환 인식과 태도(지식, 신념, 자원), 부정적 인식(32문항)
	지현아 등(2022)	주요 정신질환 및 원인 인식, 치료 자원 인식, 차별과 낙인 수준(낙인 9문항 및 기타 인식문항)

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정보의 이해를 넘어 실제 행동 실천과 사회적 인식 변화까지 확장된 정신건강리터러시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반영한다.

6. 연구주제 세부 분류

연구대상 논문 32편의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한 연구가 12편으로, 개인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정신건강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태(정순돌 등, 2016b), 도움요청 행동(박지혜, 이선훈, 2020),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도(오현주, 2022)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 연구가 6편이었다(표 7 참조).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자본,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의 외부 환경이 정신건강리터러시에 미치는 영

향을 다룬 연구가 4편 포함되었다. 내·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은 2편(권소연, 이영순, 2024; 조선영, 최송식, 2017)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건강리터러시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14편으로, 성인, 공무원, 청소년, 교사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식, 인식, 태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들 연구는 정신건강리터러시 수준의 지역 간 차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문헌고찰 연구는 4편으로, 정신건강리터러시의 개념 이해(신용옥, 2023), 국내 연구동향 분석(김희철, 2021), 한국 학교 내 정신건강리터러시의 증진 방안(최지옥, 2023)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척도 타당화 연구는 2편으로,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을 측정

표 7. 연구주제 세부 분류

구분	하위 주제	논문 수	
변인들간 관계분석	개인 내적요인	우울, 도움추구 의도 등	6
	사회 외적요인	사회자본, 지지 등	4
	내·외적 요인	내·외적 요인 통합	2
인식및실태조사	지식 수준, 인식 차이, 서비스 이용 등	14	
문헌고찰	개념, 국내 동향	4	
측정도구타당화	타당화, 척도 개발	2	

하기 위한 한국어판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다룬 고희성(2024), 김희철(2019)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정신건강리터러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거나 한국어판으로 타당화한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정신건강리터러시 관련 연구들의 경향성을 분석하고, 주요 연구대상과 주제를 분류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학문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검토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리터러시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10년 이선희와 서진환의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점차 활성화되었으며,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는 사회과학, 의약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고, 특히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과 2024년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점은 정신건강리터러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사회적 요구와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며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가 코로나 팬데믹이나 정신건강 정책 확대(교육부, 2021) 등 특정 사회적 요인에 한정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학문적 관심 유지와 제도적 연구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게재지의 학문 분야도 초기 사회복지학 중심

에서 간호학, 정신과학, 공학 등으로 확장되면서 다학제적 연구 경향을 강화하였다.

둘째, 정신건강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용어 사용의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정보 이해능력”이라는 용어가 가장 높은 빈도로 12편의 연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정신건강 지식”, “정신건강 이해력” 등 유사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 정신건강리터러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직 일관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국내 학계에서 정신건강리터러시 개념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개념적 통일은 교육과 정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제임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은 다양한 사회집단 및 연령층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중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정 직군 및 결혼 이민 여성 등의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정신건강리터러시는 전생애 발달적 측면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적응을 유지·증진시키는 핵심 역량으로, 모든 연령대에 걸쳐 균형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연구는 성인과 노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유아기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Stein과 Russell(2021)은 유아교육자가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체계적인 연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Patel, Flisher, Hetrick과 McGorry(2007)는 정신 문제가 학업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발달과업 수행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생

활주기 전반에서의 지원 체계 구축과 정신건강리터러시 교육의 연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즉, 정신건강리터러시는 단일 시기의 개입이 아닌 전생애 발달을 포괄하는 교육 및 정책적 전략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넷째, 정신건강리터러시를 활용한 국내 양적 연구는 지난 1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체 연구의 절반이 집중되었다. 전체 32편 중 27편이 양적 연구로 분류되며, 이는 정신건강리터러시가 실증적 분석과 정책적 적용 가능성이 높은 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정신건강리터러시가 단순한 지식 습득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심리·행동적 역량과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긴밀히 연계된 핵심 개념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질적연구는 단 1편에 그쳐, 개인의 인식, 태도,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 접근에 치우친 경향을 보완하고 질적 및 혼합 방법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정신건강리터러시의 다차원적 구조와 실천적 함의를 입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신건강리터러시 측정도구는 Jorm과 동료들(1997)의 초기 척도 개발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점차 발전했다. 국내에서는 이선희와 서진환(2010)이 이를 처음 도입하였다. 초기 도구는 주로 조현병과 우울증에 대한 증상 인식, 원인에 대한 이해, 대처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O'Connor와 Casey(2015)가 개발한 Mental Health Literacy Scale은 정신질환 인식, 자가 관리 지식, 위험 요인과 치료법 이해, 전문적 도움 활용 태도 등 다차원적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한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도구(2015)는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인식과 도움추구 역량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는 아직까지 해외 척도의 변안과 수정에 치중하고 있어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독자적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Kutcher와 동료들(2016)의 지적처럼 기존 척도의 심리

측정학적 한계와 문화적·발달적 적합성 부족은 국제적으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표준화된 척도 개발과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는 새로운 도구의 마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주제는 크게 변인 간 관계 분석, 인식 및 실태조사, 문헌고찰, 척도 타당화 연구로 구분되며, 이 중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한 연구가 12편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개인 내적 요인(예: 건강상태, 도움요청 행동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다수이며, 사회자본이나 사회적 지지 등 외적 요인을 다룬 연구도 일부 확인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리터러시를 단순한 지식이 아닌 '통합적 역량'으로 정의한다. 이는 정신질환의 증상을 인식하고 원인 및 위험요인을 이해하는 능력, 근거에 기반한 치료와 회복 서비스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실천 능력, 정신건강과 관련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태도와 효능감, 낙인과 편견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태도, 다양한 정보를 판별하여 자기 관리에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역량은 지식·태도·기술·행동이 상호작용하는 통합적 능력으로, 향후 정신건강리터러시 교육과 중재 개발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핵심 요소이다.

둘째,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의 확대가 필요하다. 유아·아동·청소년·노인 등 발달단계별 집단을 포괄하는 연구, 아동·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정신건강리터러시는 개인의 인식, 태도, 경험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질적연구 및 혼합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측정도구의 표준화와 문화적 적합성 검증이 시급하다. 많은 연구가 O'Connor와 Casey(2015)의 척도를 수정·변안하여 사용했으나, 수정 방식의 차이로 비교 가능성이 제한되므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표준화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가 절실하다. 정신질환은 어린 시기부터 위험 신호가 나타나

는 경우가 많아(Colizzi et al., 2020), 발달 단계에 따른 초기 인식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발달단계에 맞춘 정신건강리터러시 증진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제적 비교와 학문적 교류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외에서는 정신건강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청소년 초기 개입, 학교 기반 교육, 다문화 집단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연구 역시 이를 연계해 국제 비교와 다문화적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정신건강리터러시 연구의 경향성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는 교육적 실천과 정책적 적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소미, 서정옥, 박수희, 이강희, 김양식, 임우영, 이미숙, 전진용 (2023). 정신건강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정신신체의학*, 31(1), 33-41.
<https://doi.org/10.22722/kjpm.2023.31.1.33>
- 고희성 (2024). 한국어판 정신건강이해력 도구 타당화. *정신간호학회지*, 33(1), 40-50.
<https://doi.org/10.12934/jkpmhn.2024.33.1.40>
- 고희성, 최희승 (2015).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와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신건강이해력. *정신간호학회지*, 24(3), 168-177.
<https://doi.org/10.12934/jkpmhn.2015.24.3.168>
- 고희성, 황선영 (2018). 육군 초급간부의 정신건강이해력. *군진간호연구*, 36(2), 41-52.
<https://doi.org/10.31148/kjmmr.2018.36.2.41>
- 교육부. (2021). *고등학교용 정신건강 리터러시*. 한국교육원 경보호원.
- 권소연, 이영순 (2024).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간의 관계: 정신건강 문해력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연구*, 33(3), 161-179.
<https://doi.org/10.25280/kjrg.33.3.1>
- 김난이, 권영란 (2024). 대학생의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간호와 보건연구*, 29(2), 264-274.
<https://doi.org/10.33527/nhi2024.29.2.264>
- 김민자, 오은정, 장경오 (2024). 일 지역사회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상태, 정신건강지식,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사업 인식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5(10), 493-504.
<https://doi.org/10.5762/KAIS.2024.25.10.493>
- 김민자, 장경오, 이승애 (2020). 일 지역사회 일반직 공무원의 정신건강지식, 정신건강상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2), 639-650.
<https://doi.org/10.5762/KAIS.2020.21.12.639>
- 김주영, 남보영 (2024). 청소년의 정신건강문해력과 도움요청 태도에 대한 연구 : 부모 태도와 친구 태도의 조절 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2(4), 28-56.
<https://doi.org/10.24301/MHSW.2024.12.52.4.28>
- 김현실, 강은옥 (2019). 일 지역사회 공무원의 정신건강지식 및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태도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2), 275-285.
<https://doi.org/10.5762/kais.2019.20.2.275>
- 김희철 (2019). 한국어판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 척도(정신건강리터러시S-K)의 타당화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7(2), 35-66.
<https://doi.org/10.24301/MHSW.2019.06.47.2.35>
- 김희철 (2020). 대학생의 우울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8(2), 5-32.
<https://doi.org/10.24301/MHSW.2020.06.48.2.5>
- 김희철 (2021). 국내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 연구동향 분석: 등재학술지를 중심으로(2010-2020).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9(2), 27-54.
<https://doi.org/10.24301/MHSW.2021.3.49.2.27>
- 박병현, 김혜진, 김영선 (2016).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 정보이해능력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관 이용 여성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42, 111-135.
- 박지혜, 이선혜 (2020). 청년의 정신건강리터러시와 도움요청 행동: 도움요청에 관한 낙인, 태도, 의도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2(4), 63-92.
<https://doi.org/10.20970/kasw.2020.72.4.003>
- 백정원, 박병현 (202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건강정보이해능력 ·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6), 3311-3321.
<https://doi.org/10.22143/hss21.11.6.232>
- 백정원, 이희운, 남희은 (2018). 건강정보이해능력 ·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 국내연구경향분석 : 2007년-2017년.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2(3), 95-106.
<https://doi.org/10.12811/kshsm.2018.12.3.095>
- 보건복지부. (2015). *국가 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보건복지부. (2024a).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소아*

- 청소년). 서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2024b).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서미경, 이민규 (2013). 한국인의 정신건강이해력 평가와 취약집단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5(2), 313-334.
<http://doi.org/10.20970/KASW.2013.65.2.013>
- 서연희, 조경아 (2020).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과 인권감수성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1037-1053.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1.1037>
- 신용옥 (2023). 정신 건강 이해력 이해하기: 개념과 최신연구동향. *대한불안의학회지*, 19(2), 48-55.
<https://doi.org/10.24986/anxmod.2023.19.2.003>
- 오두남, 이지윤 (201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 노인의 우울 건강정보이해능력과 도움요청의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3(3), 276-285.
<https://doi.org/10.12799/jkachn.2012.23.3.276>
- 오미정, 김민자, 장경오 (2020). 일 지역사회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정신건강지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3), 427-437.
<https://doi.org/10.5762/kais.2020.21.3.427>
- 오은정, 장경오 (2021). G시 조선업 근로자의 정신건강상태, 정신건강지식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12), 68-78.
<https://doi.org/10.5762/kais.2021.22.12.68>
- 오현주 (2022). 간호학생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도의 예측요인: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31(1), 16-26.
<https://doi.org/10.12934/jkpmhn.2022.31.1.16>
- 이선훈, 서진환 (2010). 한국 성인의 정신건강역량: 우울증과 정신분열병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2), 127-158.
<https://doi.org/10.16999/kasws.2010.41.2.127>
- 이지현, 박현애 (2016). 보건교사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교육 실태 및 보호요인 강화교육 요구도 조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7(1), 9-20.
<https://doi.org/10.12799/jkachn.2016.27.1.9>
- 장수미, 하형미, 정지형 (2024). 농촌 중고령자의 정신건강리터러시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 1인 가구의 조절 효과.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41(1), 45-57.
<https://doi.org/10.14367/kjhep.2024.41.1.45>
- 정순돌, 이미우, 박채리, 임정숙 (2016a). Andersen과 Newman 모델을 활용한 정신건강정보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집단과 다른 연령집단간 비교. *노인복지연구*, 71(3), 193-218.
<https://doi.org/10.21194/kjgsw.71.3.201609.193>
- 정순돌, 임정숙, 이미우, 정세미 (2016b). 노인의 심리사회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및 정신건강변수와 건강정보이해력 및 정신건강정보이해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1), 123-149.
<https://doi.org/10.16999/kasws.2016.47.1.123>
- 조선영, 최송식 (2017).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Mental Health Literacy)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자아존중감, 가족지지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44), 165-186.
- 지현아, 김사라, 이미숙, 박수희, 김양식, 이강희, 전진용 (2022). 일반 인구의 정신건강지식 비교 분석. *정신신체의학*, 30(1), 38-45.
<https://doi.org/10.22722/KJPM.2022.30.1.38>
- 지효진, 장유진, 이주미 (2024). 영유아교사의 대처유연성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분노조절효능감과 불안조절효능감을 매개로. *인간발달연구*, 31(3), 163-177.
<https://doi.org/10.15284/kjhd.2024.31.3.163>
- 최지옥 (2023). Promoting Mental Health Literacy at Schools in South Korea.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4(1), 15-20.
<https://doi.org/10.5765/jkacap.220037>
- 통계청. (2025. 09. 25). 사망원인통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에서 2025년 9월 27일 인출
- 한국연구재단. (2016. 2.).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https://www.nrf.re.kr/index>에서 2025년 6월 20일 인출
- 한소중, 이동하, 이해리, 황준원 (2023). 성별과 연령에 따른 강원도의 정신건강 이해력 및 COVID-19 관련 정서상태 조사. *신경정신의학*, 62(4), 192-198.
<https://doi.org/10.4306/jknpa.2023.62.4.192>
- 홍현숙, 김수진, 송진희, 하유정, 노성원 (2008). 우리나라 일반성인의 정신건강지식실태조사. 서울: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 Colizzi, M., Lasalvia, A., Ruggeri, M. (2020).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in youth mental health: is it time for a multidisciplinary and trans-diagnostic model for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Systems*, 14(23), 1-14.
<https://doi.org/10.1186/s13033-020-00356-9>
- Jorm, A. F., Korten, A. E., Jacomb, P. A., Christensen, H., Rodgers, B., & Pollitt, P. (1997). Mental health literacy: A survey of the public's ability to recognize mental disorders and their belief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66(4), 182-186.
<https://doi.org/10.5694/j.1326-5377.1997.tb140071.x>
- Jung, H., von Sternberg, K., Davis, K. (2016). Expanding a measure of mental health literac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component mental health literacy measure. *Psychiatry Research*, 243, 278-286.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6.06.034>
- Kutcher, S., Wei, Y., & Coniglio, C. (2016). Mental health

- literacy: Past, present, and futur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61(3), 154-158.
<https://doi.org/10.1177/0706743715616609>
-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1), 159-174.
- O'Connor, M., & Casey, L. (2015). The mental health literacy scale: A new scale-based measure of mental health literacy. *Psychiatry Research*, 229(1-2), 511-516.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5.05.064>
- Patel, V., Flisher, A. J., Hetrick, S., & McGorry, P. (2007). Mental health of young people: A global public-health challenge. *The Lancet*, 369(9569), 1302-1313.
[https://doi.org/10.1016/S0140-6736\(07\)60368-7](https://doi.org/10.1016/S0140-6736(07)60368-7)
- Smith, B. R., Armstrong, M., Davis, C., Epps, C., Massey, O., & McNeish, R. (2007).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instrument to measure mental health literacy* [Conference paper]. iHEA 6th World Congress: Explorations in Health Economics.
- Stein, R., & Russell, C. E. (2021). Educator perspectives of early childhood mental health: a qualitative study in colorado. *School Mental Health*, 13(4), 845-855.
<https://doi.org/10.1007/s12310-021-09454-6>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8, October 18). Literate environment. Retrieved July 1, 2025, from <https://uis.unesco.org/en/glossary-term/literate-environment>